



가정통신문

성실 창의 협동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

교육정보부
제2023-1호
교무실 859-7114
<http://iri.hs.kr>

여성가족부·교육부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미디어 과의존 문제 및 미디어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개인·집단상담,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K-척도, S-척도를 이용하여 자녀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며, 이용 정도에 따라 일반, 주의, 위험사용자군 총 3단계로 분류됩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개발한 청소년 도박문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 일반, 주의, 위험군 총 3단계로 분류됩니다.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스스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주의를 요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님(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방법 지도 및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자녀양육에서 힘든 점으로 자녀의 미디어사용 증가가 꼽힐 만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도 4월 중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조사 결과, 미디어 과의존 주의, 위험 사용자군에 해당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상담·치료 지원” 사항 안내 및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며(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메시지), 사이버 도박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서비스가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검사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3.

이 리 고 등 학 교 장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세요.

◆ 진단조사 참여 기간 : 4월 3일(월) ~ 4월 21일(금)

[참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방법

1. 접속방법(택 1)

① 웹사이트 접속

<https://e-jindan.kr>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두 가능)

② QR코드 접속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p>학교용</p> <p>진단조사</p> <p>추가심리검사</p> <p>교사용</p> <p>교육청용</p>	<p>청소년상담복지센터용</p> <p>진단조사(초·중·고)</p> <p>추가심리검사(초)</p> <p>추가심리검사(중·고)</p>	<p>유관기관용</p> <p>진단조사(초·중)</p> <p>진단조사(중·고·대)</p> <p>진단조사(보호자용)</p>
---	--	--



2. 학교 검색 및 입력

진단조사

학교검색

학교명 검색

학교명 넣고 검색 버튼 또는 엔터를 눌러주세요. 학교명은 3자리 이상 입력하세요!

학교명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초·중·고 구분 학교명 시도 사군구 선택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3. 청소년 정보 입력

진단조사

학교정보입력

아래를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의 개인정보는 진단조사 종료 이후 자동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비밀번호는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학년	반	번호	이름	성별	비밀번호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입력:	—성별—	비밀번호를

우리학급의 비밀번호는 () 입니다



4. 진단조사 실시

인터넷 이용습관

본 조사는 여러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에서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대우 그렇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자세한 설명] 내용을 읽어보세요.

번호	항목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	○	○	○
2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	○	○	○
3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	○	○	○
4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	○	○	○